

추도문

실천적 과학철학을 정립한 행동하는 과학철학자, 송상용 선생님을 마음속 깊이 추모합니다.

이중원†

2005년에 송상용 선생님은 사재를 털어 한국 과학철학회에 거액의 기부 (3,000만 원)를 하셨습니다. 이 기금으로 2005년에 한국과학철학회의 논문상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고, 2006년에 첫 논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과학철학의 발전에 매우 뜻깊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과학철학 분야는 갓 출발한 상태에서 연구 환경 및 학문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아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논문상 제정으로 가문의 단비처럼 한국의 철학계에서 과학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학문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과학철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 당시 저를 포함한 수많은 과학철학 연구자들이 한국에서의 과학철학 연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확고히 가질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송상용 선생님은 저에겐 개인적으로 어찌면 과학철학 연구자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과학철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천적 과학철학을 정립하고 몸소 행동하신 과학철학자로 말입니다. 선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jwlee@uos.ac.kr

생님은 제가 직접 배운 바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이나 투고의 글, 실천 행동 그리고 수많은 토론 만남을 통해 과학철학의 새로운 면모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대선배이시자 스승이십니다.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주목하여,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이에 윤리적 가치와 철학적 성찰을 접목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실천적인 과학철학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생명 윤리 문제, 환경 문제, 핵 문제 등에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몸소 실천하십시오으로써, 21세기 한국에 필요한 실천적인 과학철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저희 후학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과학철학 연구자들이 가야 할 과학철학의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그동안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그 길을 선생님은 개척해 주셨습니다. 실천적인 과학철학의 선구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실천적 과학철학은 이론적 사유에 얽매인 관념적 철학이 아니라 행동 실천의 철학이며, 분석적 사고에 머무는 정적인 철학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역동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 철학 정신은,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을 맞닥뜨린 한국의 과학철학계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나노 과학기술, 생명 공학 기술, 정보 기술,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영향이 극도로 심대해지면서, 과학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과 실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과학철학 분야에서 강조해 온 중심 주제들이었던 과학의 합리적 방법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나 과학 이론을 통한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지요.

선생님께서 몸소 처음으로 개척하여 가신 그 길이, 이제는 누구나 다닐 수 있고 가야 할 길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뒤를 이어 많은 후학들이 그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철학 연구자들이 선생님을,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신

과학철학자, 한국 사회에 실천적 과학철학을 정립하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
신 행동하는 과학철학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